

2022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결과보고

□ 회의개요

- 회 의 명: 2022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 일 시: 2022. 12. 12.(월) 오전 11:00
- 회의방법: 비대면 화상회의(ZOOM)
- 참석인원: 재적이사 26인 중 15인 참석(감사 2인 제외)

연번	직 책	성 명	참석여부	비고	연번	직 책	성 명	참석여부	비고
1	회장	이 경 렬	O		16	이 사	권 성 백	X	
2	부회장	최 일 근	O		17	이 사	손 호 성	O	
3	부회장	김 문 기	O		18	이 사	최 문 영	O	
4	부회장	정 락 영	O		19	이 사	박 종 윤	X	
5	부회장	민 황 옥	X		20	이 사	양 해 원	O	
6	부회장	정 용 연	X		21	이 사	유 정 만	O	
7	부회장	이 주 철	X		22	이 사	하 진 상	X	
8	이 사	유 인 식	O		23	이 사	김 대 형	X	
9	이 사	오 인 선	O		24	이 사	강 정 환	O	
10	이 사	이 현 우	-	대상자	25	이 사	조 형 욱	O	
11	이 사	박 선 자	X		26	이 사	한 동 원	O	
12	이 사	이 말 우	O		27	이 사	홍 사 범	X	
13	이 사	박 정 숙	X		28	감사(행정)	김 선 공	O	제외
14	이 사	정 미 자	O		29	감사(회계)	임 재 석	O	제외
15	이 사	이 홍 구	X						

※ 임원 1명(이현우 이사) 국가대표 지도자(감독) 대상자로 이사회 재적인원에서 제외함.

□ 심의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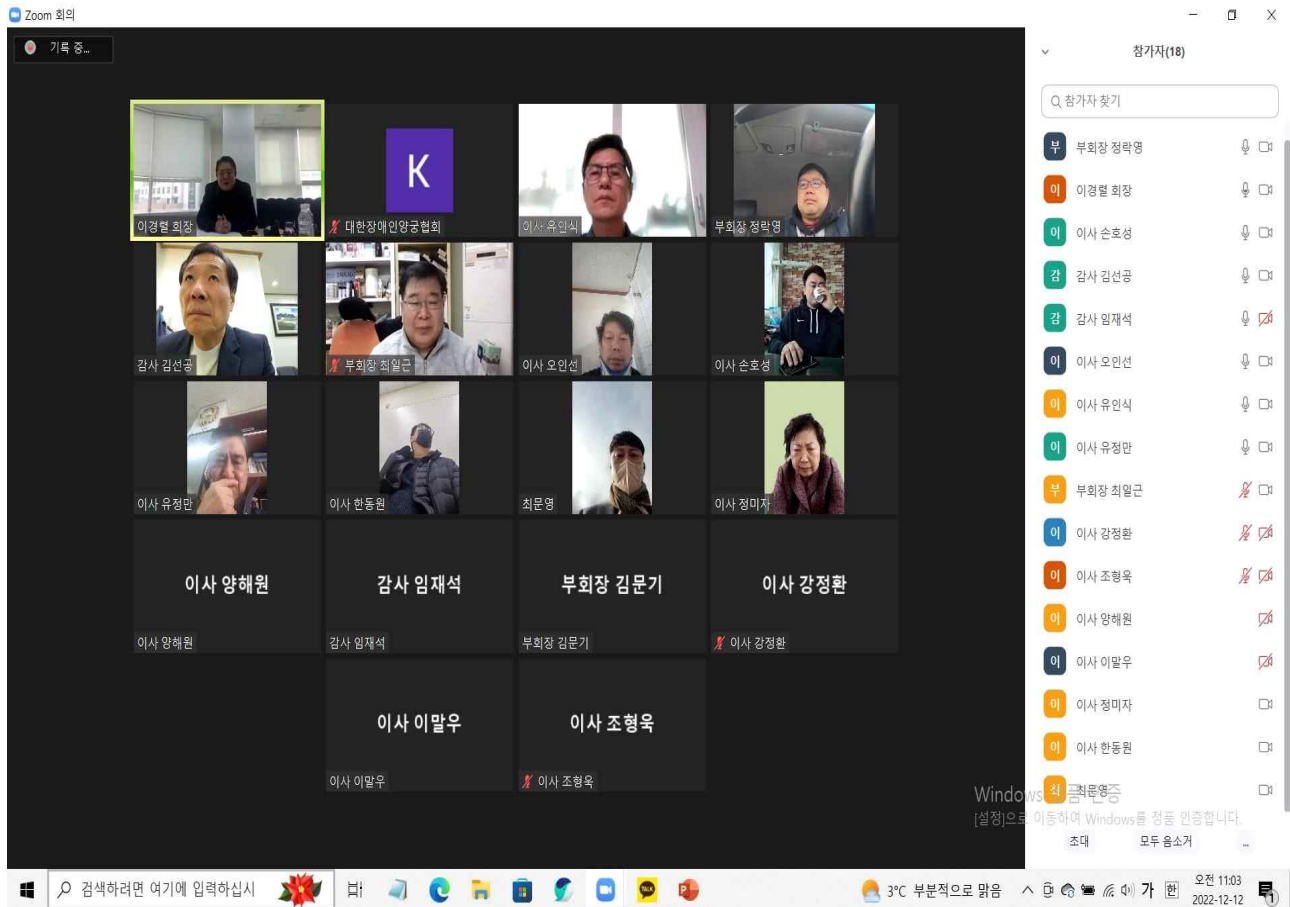
안건번호	심의안건	결과
1호	2023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의 건	원안대로 심의의결

※ 회의안건 불임참조

- 불임 1. 비대면 회의 참석인원 증빙사진
2. 이사회 회의록

[붙임 1]

□ 비대면 회의 참석인원 증빙사진



안건1: 2023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의

[주요내용]

- ◆ 2023년도 국가대표 지도자(감독, 코치) 선발 결과
 - 회 의 명: 제11차 전문체육위원회
 - 일 시: 2022년 11월 23일(수) 오전 09:30
 - 장 소: 청명타운텔 401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7)
 - 심사위원: 전문체육위원회 총 5인 중 5인 전원 참석
 - 심사결과
 - 감독: 지원자 총 3명 중 1명 선발
 - 코치: 지원자 총 4명 중 1명 선발
 - 선발명단
 - 감독: 이현우(남 / 68.01.09) / 코치: 임희정(여 / 77.07.17)



[붙임 2]

2022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회의일시	<input type="checkbox"/> 2022년 12월 12일(월), 오전 11시
회의방법	<input type="checkbox"/>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석인원	<input type="checkbox"/> 참석인원 : 재적이사 26인 중 15인 참석 이경렬 회장, 최일근 부회장, 김문기 부회장, 정락영 부회장, 유인식 이사, 오인선 이사, 이말우 이사, 정미자 이사, 손호성 이사, 최문영 이사, 양해원 이사, 유정만 이사, 강정환 이사, 조형욱 이사, 한동원 이사, ※ 감사 두 분(임재석 회계감사 / 김선공 행정감사)은 참석하였으나 재적이사로 해당되지 않음.
회의내용	<input type="checkbox"/> 심의안건 안건 1호 : 2023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의 건
토의내용	<p>○김문선 간사</p> <p>안녕하세요. 오늘 제3차 임시이사회 화상으로 회의진행을 맡게 된 사무국장 김문선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와 애국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보고입니다. 재적이사 26인 중 15인의 이사님들께서 참석해주셔서 우리협회 정관 제33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경렬 회장께서 개회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p> <p>○이경렬 회장</p> <p>성원이 되었음으로 2022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의사봉 3회)</p> <p>이사님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이사님들 화상회의로나마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고, 많이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2023년 국가대표 지도자(감독, 코치) 선발의 건으로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3일 우리 협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1차 면접을 실시하여 월급제 지도자 감독 1명, 코치 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2차로 오늘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최종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종 승인을 받은 후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대표 지도자로서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럼, 2022년 제3차 임시이사회 심의안건 2023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1호 2023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회)</p> <p>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김문선 간사</p> <p>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협회에서는 2023년도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20조에 의거하여, 국가대표 채용절차에 따라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 모집을 10월 2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1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모집결과 감독분야에서 3명이 지원하였고, 코치분야에 4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서류심사를 실시한 결과 응시자 전원 통과하였으며, 이어서 면접심사는 11월 23일 수요일에 제11차 전문체육위원회를 개최, 전문체육위원 5인, 전원을 면접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감독분야에서는 이현우 응시자, 코치분야에서는 임희정 응시자로 선발되었고, 11월 24일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 면접결과를 공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 평가결과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2023년 국가대표 지도자 명단을 제출하기 위하여 오늘 제3차 임시이사회에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12월 15일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2023년 국가대표 지도자(감독, 코치)를 승인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지도자 활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당제 코치 1명과 트레이너 2명 선발 건은 2023년 3월</p>

에 실시하는 국가대표 선수 최종선발전이 끝나면 체육회와 협의를 통하여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응시지원자 이력서를 첨부해드렸습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경렬 회장

이의 있으신 이사님들 계십니까?

○유인식 이사

네. 국가대표 지도자 감독분야 응시지원자 중 안태성, 이흥구, 이현우씨 이렇게 지원한걸로 알고 있는데, 올 한해 이흥구 감독님이 국가대표 감독을 활동해왔는데, 지도자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이현우씨를 2023년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하게 되었는지 진행과정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문선 간사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감독으로 활동하셨던 이흥구 감독은 평가에 있어서는 제10차 전문체육위원회에서 국가대표 선발 규정(제5조 ③항)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용 및 재임용 시, 해당 지도자의 평가보고서를 작성 평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전문체육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현 이흥구 감독을 포함하여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차 전문체육위원회에서는 2023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의 건을 가지고 회의를 실시하였고요, 심의결과는 2023년 지도자(감독, 코치1)는 공개채용으로 선발하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임시이사회에 최일근 전문체육위원장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지도자 선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인식 이사

보통 국가대표 감독은 2년 정도 하고 난 뒤 평가를 받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쯤 하면서 열심히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결과를 좋게 도출해내려 하는데, 국제대회 나가서 결과도 제대로 못 받고, 감독을 다른 사람으로 선임한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요. 과정을 좀 알려주세요.

○최일근 부회장

네.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올해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국제대회가 치러진 게 없어서요, 물론 두바이에 다녀온 건 있습니다만, 성적이 저조하고 해서 평가보다는 공고를 통해서 채용하는 쪽으로 전문체육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모집공고를 통해 2023년도 국가대표 지도자를 채용하는 걸로 결정해서 11월 23일, 후보자는 감독은 3명, 코치는 4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 결과 이현우 후보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채용이 되었고, 그다음 임희정 코치로 채용이 되어서 오늘 임시이사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유인식 이사님께서 과정을 알고 싶다고 질문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간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전문체육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것이냐, 모집공고를 할 것이냐 라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서 모집공고로 진행하는 걸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면접과정은 저희가 전문체육위원회 5인이 참석해서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빼고, 3명의 면접위원 점수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전문체육위원회에서는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평가기준에서 국제대회가 두바이 딱 1건이 있었고, 이 1건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성적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통해 채용하자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물론 현 국가대표 감독님도 감독분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미자 이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역사상 국가대표 감독이 1년하고 평가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더더욱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였고요. 두바이대회에 저도 같이 참가했지만 코로나 양성반응이 나온 선수가 여럿 있어서 성적내기는 더더욱 어려웠고요. 일단 장애인 양궁 팀은 장애인양궁 선수 입장에 서서 임원들이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안에 다시 모집공고를 해서 감독을 새로 뽑는다는 거는 여태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전문체육위원회 위원님들 중 양궁선수 출신이 몇 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대

표 선수들은 감독이 수시로 바뀌어서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감독은 2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바이대회 성적 미비라든지 장애인아시아게임이 늦춰져서 참가를 못했는데, 전문체육위원회 마음대로 1년 만에 모집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선수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감독이 한 번 선임되면 감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선수들에게 충분히 지도할 수 있게 2년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왜 전문체육위원회에서는 1년 만에 감독을 교체하려는지요. 저는 선수입장에서 볼 때 이번 전문체육위원회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일근 부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규정에도 2년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유인식 감독님은 1년을 하시고 지도자로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어떤 규정에서 국가대표 감독은 2년을 보장해야한다고 하는지 이사님이 답변해주시죠.

○정미자 이사

제가 장애인양궁에 오래 있으면서 느껴진 게 이번 회장님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여러 차례하고 계셔서 제가 참 이사를 안 하고 있다가 선수들이나 장애인양궁 발전에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되고자 이사를 하겠다고 자처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애인선수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구성을 할 때 감독이나 코치나 해서 장애인출신을 한명 선임함으로써 장애인선수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용된 두 분 모두 훌륭하신 분이지만 선수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장애인출신 중에 한 분이 감독이나 코치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은 짧습니다. 제가 선수생활과 지도자생활도 해봤지만 1년을 가지고 선수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선수에 대한 모든 걸 지도할 수 있는 기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전에 유인식 감독님이 1년을 지내시다 그만두셨다고 하시더라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이사님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생각해보시고 나중에 발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일근 부회장

전문체육위원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지금이다. 라는 건 규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김태형 부위원장은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조현주 위원님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양궁협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오인선 위원님은 장애인양궁 선수 출신이시고, 윤미진 위원님은 비장애인양궁 선수 출신으로 올림픽대회에서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입니다. 지금 전문체육위원님들은 이사님들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미자 이사님, 전문체육위원님 모두 전문가이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비전문가라고 하시는지 말씀해주시죠.

○정미자 이사

비전문가라 표현하기 보다는 장애인양궁 쪽에서는 오인선 위원님만 종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선수입장에 서서 저는 장애인 쪽에 종사하는 게 55년 되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도 장애인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부회장

이사님, 혹시 그게 선수를 대변하는 게 아니시죠?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정미자 이사

선수입장 대변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 선수들과 통화를 해보니, 저한테 이번 감독, 코치에 대해서 선수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배려가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이사로서 발언 부탁한다고 했었습니다. 선수들이, 1년 만에 이흥구 감독님을 놔두고 새로 뽑는다는 건 장애인양궁계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감독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도 않으시고, 다시 모집공고

를 진행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법적이다, 아니더라는 걸 논하는 게 아닙니다.

○최윤희 부회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증장애인 법인에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저도 장애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고,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현재 수원시 장애인 복지분과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은 장애인 분이 아니시고 선수로서 생활을 하셨잖아요. 저도 장애인 쪽에 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설립을 하고,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은 비장애인 선수로서 선수생활을 하셨고요.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선수 일부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전문체육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 선발한 국가대표 감독과 코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 라는 건 이사님의 개인의견으로써 제시를 해주고, 선수들 모두가 동의했다고 하면 선수명단을 제출해주세요. 협회에다가, 안건에 반대하는 선수와 찬성하는 선수도 있을 텐데, 전체 선수들의 의견인걸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출신 감독을 원한다. 라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주면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토의해보겠습니다.

○정미자 이사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수들의 의견을 한 번 제가 알아본 거고요. 선수들이 말한 거에 따라서 제가 발언한건 절대 아닙니다. 서울장애인양궁협회 회장을 15년 했고, 비장애인양궁 심판과 지도를 몇십년 해온 사람으로서 장애인선수들의 불편사항 다 알고 있습니다. 이흥구 감독이 훌륭한 지도자로 저는 생각하는데 왜 1년 만에 교체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니 의사표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체육위원회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뽑아주셨겠지만, 이흥구 감독이 장애인선수 출신이고, 장애인 감독이시고, 수많은 대회를 참석해서 국제대회 경험이 많은 감독님을 위로하고, 새로운 감독을 추대해서, 지금 두 분 다 비장애인 쪽인데, 과연 그 두 분이 장애인선수에 대해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지도를 할 수 있는지, 심리적인 부분이나 등등이요. 한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뽑고, 한 사람은 젊은 사람으로 배려해서 뽑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제가 발언한다고 해서 회장님과 다른 이사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이사로서 발언한 거뿐입니다. 그거를 근거를 제시하라하고, 명단을 제시하라하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유인식 이사

저는 1994년부터 운동해서 안태성씨 이흥구씨, 이현우씨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태성씨는 2014년도에 제가 선수였을 때 안태성씨는 감독이셨고, 이흥구씨는 저랑 선수생활을 같이 했었고, 이현우씨는 15년 전부터 저희 밑으로 와서 화살을 뽑아주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회장님께서 선택과 집중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전부 다 교체하겠다고 하셔서, 비장애인 쪽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올 줄 알았는데, 이현우씨 같은 경우는 2016년 ~ 2019년도까지 감독, 코치로 가서 최초로 2017 베이징세계선수권에서 노메달로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감독한테 모두 탓할 건 아니지만, 이현우씨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제 밑에서 코치로 지내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감독이 되었는지 의아하고요. 안태성씨나 이흥구씨 둘 중 한 분이 될 줄 알았는데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렬 회장

저 같은 경우에는 전 감독님들 보다 새로운 감독님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현재 이현우 감독과 임희정 코치가 뽑혔지만 제가 전문체육위원회에 말을 했어요. 대한장애인양궁협회에 소속되어있는 역대 감독님들을 보다가 비장애인이더라도 전 국가대표나 코치로서 경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주시길 원한다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좀 더 바뀔 수 있다. 제가 바란 건 지금 시스템적인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가 기간을 주고, 공고를 내고 했을 때 기존에 같이했던 팀보다도 국제대회 나가서 메달을 많이 획득한 분이 감독을 해주십사했지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체육위원회도 책임감을 가져야한다. 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가서 메달을 못 따면 효과가 없었다. 라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성과가 없었을 때 모두 책임을 지자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당신들 자리를 걸로 뺏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해보면서 평가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의, 비 동의로 진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진행해보면서 바꾸려고 해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주세요.

○정미자 이사

회장님, 뜻은 참 훌륭합니다. 저와 회장님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비장애인에서 온다면 장애인선수 출신 감독이 오지 않아도 A급 감독이 와서 금메달도 따고, 성적도 올라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연봉이 현 감독들의 두 배급으로 줘야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협회 예산 실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경렬 회장

만들어 보면 되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만들면 되고요.

○정미자 이사

회장님이 열과 성을 다 하신다면 비장애인 쪽에서 A급 국가대표 감독을 데려오고 싶다면 그렇게 예산을 추가해서, 여러 사람에게 십시일반 내게 해서 진행해도 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진짜 파리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이라도 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뜻에 적극 동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왕 이렇게 뺏았으니까 동의한다, 안 한다. 로 해서 책임운운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경렬 회장

모든 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른 의사님들 의견은 나중에 들어보면 되는 거고요. 이사님 말씀도 맞지만 솔직히 지금 현실이 감독님들 능력이 부족해서 저희 메달이 노메달이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작금의 현실은 저변확대도 안되고, 장애인양궁이 뭐가 모태입니까. 상이군경이 모태입니다. 지금은 저희 문제가 선수 저변확대도 안되고, 그에 따른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해서 선수층이 얇으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이 시점이 여기까지 흘러왔을 때,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저희들 책임이고요. 이것을 다시 되돌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여기 이사님께서 다 반대하시면 다시 해야겠지 만요. 하지만 그때는 다 늦은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양궁 현실을 보면 진짜 마음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들의 수준과 성적이 저조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저희가 있을 때 저희 식으로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정미자 이사

회장님 말씀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장애인아시안게임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출전하는 대회입니다. 국가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적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감독을 선임해서 최대한 성적이 나올 수 있게끔 하자고 회의하는 건데요.

○최일근 부회장

정미자 이사님, 그러면 이현우 감독님은 실력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미자 이사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대회에 이현우 감독님도 장애인 쪽에 오신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지만, 장애인선수출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선수출신이 감독으로 임하고 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부회장

그러면 이사님 생각은 훌륭한 비장애인 감독이 오는 것도 반대, 장애인선수 출신이 지도자가 되어야한다, 아까 전에는 여건이 되면 비장애인 감독이 와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정미자 이사

제가 말씀한 걸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 대처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이 된 사람을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하자는 말입니다. 이흥구 감독이나, 유인식 감독, 안태성 감독 등 선수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세워 주십사

	<p>라는 뜻입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원래 계획했던 예산대로 진행이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p> <p>○이경렬 회장</p> <p>유인식 이사님과 정미자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이사님들 의견 또 없으신가요?</p> <p>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동의, 또는 비 동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정미자 이사님, 정확한 뜻을 말씀해주세요.</p> <p>○정미자 이사</p> <p>저는 다시 고려해 주십사 동의 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p> <p>○이경렬 회장</p> <p>또 동의 안하시는 분?</p> <p>○유인식 이사</p> <p>(거수)</p> <p>○이경렬 회장</p> <p>유인식 이사님. 또 동의 안하시는 분 계신가요?</p> <p>그러면 2023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의 건은 두 분의 비동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다른 이사님들의 의견도 있으니 동의 과반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회)</p> <p>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유인식 이사님이나 정미자 이사님 말씀도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하나하나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 협회가 헤쳐 나가야 할 길이 많다고 봅니다. 2023년은 무언가 결실이 나올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p> <p>끝으로 폐회선언 전에 이사님들께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부회장님하고 약간의 이사님들,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한장애인양궁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꼭 이분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분이 계시면 협회로 추천해주세요. 꼭 협회 발전을 위해 한 마디 해주실 수 있는 분, 길을 제시해주시고 하시는 분들을 추천해주시길 바랍니다. 양궁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도 많이 아시고 계시니까 힘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p> <p>○김문선 간사</p> <p>네. 이어서 회장님께서 폐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p> <p>○이경렬 회장</p> <p>속으로는 마음이 좀 뿌듯합니다. 대한장애인양궁협회의 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1월 달 정기이사회 때 새로운 인물들도 많이 추천해주시고, 대한장애인양궁협회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분들, 경력과 연륜도 있으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2년 제3차 임시이사회 화상회의에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3차 임시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p> <p>감사합니다.</p>
--	---